



# 아무리 시범경기라지만... KIA, SK에 이틀 연속 영패 수모

KIA타이거즈가 올 시즌 첫 공식경기에서 이틀 연속 영패의 수모를 당했다. KIA는 18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SK와의 시범경기 2차전에서 0-2로 패했다. 종아리 근육통으로 서툰 KIA타선은 2경기 연속 1점도 뽑아내지 못하는 무기력증을 보였다.

국내 공식경기에서 첫 선발피칭에 나선 신입용병 세스 에서튼은 이날 3이닝 동안 7개의 볼을 던질 정도로 제구력은 완전치 않았으나, 위기관리 능력에선 합격점을 받았다.

1회부터 중전안타를 맞고 연속 볼넷을 내주며 무사안위 위기를 맞기도 한 에서튼은 3이닝 동안 1안타, 4사구 5개로 불안한 제구력을 보였지만, 실점을 기록하지 않았다.

위기 때마다 최고 스피드 143km짜리 직구를 앞세운 전력 피칭으로 타자들을 잡아내는 등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선보였다. KIA 마운드는 이동현, 김희걸, 진민호가 마운드를 물려받으며 '0'의 행진을 이어갔지만, 9회초 정원이 홈런 등 3안타를 얻어맞고 2실점하며 결국 무너졌다.

KIA 타선은 SK 선발 이영욱에 이은 정우람, 이한진, 조웅천을 상대로 3안타의 빈타에 허덕였다.

이밖에 롯데는 마산구장에서 열린 LG전에서 전날(13-10)에 이어 5-1로 승리했고, '화끈한 공격력 부활'을 선언한 두산도 수원에서 현대를 5-1로 물리치고 2연승을 내달렸다. 전년 시즌 우승팀인 삼성은 제주에서 한화를 6-2로 누르고 전날 1-4 패배를 설욕했다.

지난해 신인왕, 정규시즌 최우수선수, 골든글러브를 휩쓸며 '괴물' 열풍을 일으킨 한화의 좌투수 류현진은 이날 삼성전에서 2이닝 동안 안타 5개를 맞고 6실점했다.

한편 KIA는 지난 17일 열린 SK와의 시범경기 개막전에선 올 시즌 최고 신인으로 꼽히는 김광현(19·SK)의 호투쇼(4이닝 2안타 무실점)에 막혀 0-3으로 패했다.

KIA 선발 김진우(3이닝 2안타 1실점)는 3회 무사, 1, 3루서 이진영에게 내야땅볼로 1실점한 뒤 교체됐고, 9회초 '특급 마무리' 한기주(1이닝 3안타 2실점)마저 박연수와 박재홍에게 연속 2루타를 내주며 2실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루니의 강스파이크 18일 인천도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플레이오프전에서 현대캐피탈 루니가 대한항공 이영택, 김영래의 블로킹 벽을 피해 스파이크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외파들도 죄다 부진

### 이병규는 1타점 2루타

미국과 일본 등 해외의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선수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뉴욕 메츠의 박찬호(사진)는 18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 3이닝 동안 홈런 3개를 포함해 7안타를 허용하며 7실점(4자책점)하고 물러났다. 콜로라도 로키스의 김병현(28)도 지난 17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4.2이닝 동안 8실점하며 불투명한 앞날을 예고했다.

각각 팀 내 5선발에 도전 중인 박찬호와 김병현의 시범 경기 평균자책점은 8.68과 9.00. 경쟁자인 마이크 펠프리(메츠, 평균자책점 1.00)와 조시 포그(콜로라도, 4.00)에 성적에서 밀리고 있어 남은 기간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선발 탈락을 당담히 받아 들여야 한다.

특히 김병현은 클린트 허들 감독이 포그를 5선발로 확정할 경우 트레이드 수순을 밟게 된다.

일본 프로야구에선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가 2루타를 터트리며 1주일만에 타점을 추가했으나,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은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이병규는 18일 삿포로돔에서 열린 니혼햄 파이터스전에서 1-6으로 뒤진 9회 무사 1루에서 상대 우투수 다케다 히사시로부터 좌월 2루타를 터트리며 1루 주자 아라키 마사히로를 불러들였다.

도쿄돔에서 벌어진 한신 타이거스전에 1루수 겸 4번 타자로 출장한 이승엽은 4타수 무안타에 그쳐 시범 경기 타율이 0.222(36타수8안타)로 떨어졌다. 요미우리는 2-5로 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나와라"

### PO 2차전서 대한항공에 3-2 역전승



### 여자부 현대건설도 도로공사 꺾고 챔피언 진출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의 돌풍을 잠재우고 챔피언결정전에 올라 2년 연속 우승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렸고 여자부 현대건설은 도로공사를 꺾고 흥국생명과 우승컵을 다투게 됐다.

현대캐피탈은 18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2006~2007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손 루니(28점)와 철벽 센터진을 앞세워 두 세트를 먼저 내주기도 대한항공에 3-2(22-25, 19-

25, 33-31, 25-18, 15-11)로 승리하는 역전 드라마를 펼쳤다.

이로써 현대캐피탈은 3전2선승제로 치른 플레이오프에서 2전 전승으로 챔피언 티켓을 얻었다.

프로 원년인 2005년 V-리그와 2005~2006 시즌 정규리그 1위를 했던 현대캐피탈은 첫 플레이오프 관문을 통과, 세 시즌 연속 챔피언에 나가기 됐다.

지난해 통합 챔피언 현대캐피탈은 24일부

터 겨울리그 열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정규리그 1위팀 삼성화재와 5전 3선승제의 챔피언전을 벌인다.

수원에서 벌어진 여자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선 한유미(26득점)가 활약한 현대건설이 레이첼 반미터(24득점)가 분전한 도로공사를 3-0(26-24, 25-22, 25-21)으로 눌러 우승컵에 도전하게 됐다.

현대건설은 2년만에 진출한 플레이오프에서 도로공사에 1, 2차전을 모두 승리하며 처음으로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하는 감격을 맛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위클리, 동반 플레이어 퍼팅시 깃대 뽑아주다 2벌타

### 스포츠클럽 발취하러다 '덤터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부 위클리(미국)가 동반 플레이어를 도우려다 오히려 자신이 2벌타를 받았다고 A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상황은 18일(이하 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골프장(파70·7천137야드)에서 열린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널 3라운드에서 일어났다.

2번홀(파3)에서 경기를 하고 있던 위클리는 동반 플레이어 톰 존슨(미국)이 그린에서 퍼트 대신 칩샷을 한 볼이 홀을 향해 굴러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존슨은 홀에 세워진 깃대를 치우지 않았고 볼이 깃대를 맞고 들어갈 경우 존슨은 벌타를 받게 된다.

스포츠클럽을 발취한 위클리는 재빨리 달랠러가 깃대를 치워 주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됐다.

존슨이 위클리에게 깃대를 치워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회 규정

상 존슨이 아닌 위클리가 2벌타를 받게 됐다.

결국 위클리는 이날 3언더파 67타를 쳤지만 발타로 인해 1언더파 69타로 정정한 성적을 스코어카드에 적어내야 했다.

이 상황을 관정한 마크 러셀 PGA 투어 경기위원은 "27년간 골프 경기를 보았지만 이러한 광경은 처음이다. 만약 존슨의 칩샷이 깃대를 맞고 들어 갔다면 존슨이 2벌타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테일러 선두속 커티스·싱·우즈 맹추격

### PGA 투어 아널드파머 3R

### 최경주 62위·양용은 74위

심술궂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본 테일러(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단독 선두로 나섰다.

테일러는 18일(이하 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골프장(파70·7천137야

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는 2개로 막고 버디 5개를 뽑아내 3언더파 67타를 쳤다.

중간합계 8언더파 202타로 리더보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테일러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생애 세번째 PGA 투어 우승을 바라보게 됐다.

하지만 2003 브리티시오픈 우승자 벤 커티스(미국)가 2타 뒤진 6언더파 204타로 뒤를 쫓았고 '흑진주' 비제이 싱(피지)과 노장

톰 레먼(미국)이 5언더파 205타를 치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또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보기 1개를 버디 1개로 맞바꾸며 이븐파를 치는데 그쳤지만 중간합계 3언더파 207타로 레티프 구센(남아공)과 함께 공동 10위에 자리하며 우승컵을 넘보고 있다.

한국의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버디는 2개에 그치고 더블보기 1개, 보기 6개를 쏟아내며 중간합계 6오버파 216타로 공동 62위까지 밀렸다.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도 9타를 잃어 10오버파 220타, 공동 7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기타교육 캠퍼스는 가장 좋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파워(전) 편집(전) 보기(전) 즐겨찾기(전) 도구(전) 도움말(전)

주소 http://www.gitan.co.kr/

# 기타 홈페이지에 오면 1등 노하우가 보인다

1등 캠퍼들은 매일매일 기타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한글 크로마이드부터 세계지도, 급수한자포스터까지... 우리가 아예 꼭 필요한 학습자료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해캠퍼들의 교육노하우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검색창에 '기타교육'만 쳐 보세요. 오해할 일 없었던 차세대교육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gitan.co.kr

기타 인터넷회원이 되세요  
기타 홈페이지에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캠퍼님 교육자료도 다양한 학습자료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최신 교육자료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타교육 캠퍼스는 가장 좋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기타교육 캠퍼스는 가장 좋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기타교육 캠퍼스는 가장 좋은 선생님을 만납니다.